



한여름 열대야 속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2024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올림픽 개최 전 예상했던 5개의 금메달을 훌쩍 넘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는 성과를 냈다. 메달 색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가 승자였고, 모든 선수가 영웅이었다. 이제 우리의 선수들은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해 준비에 다시 들어간다.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맘의 대가인 메달을 맨 모습을 이어 붙이기 했다. /연합뉴스

소수 정예 '팀 코리아' 뜨거웠다

금 13·은 9·동 10 종합 8위 목표 초과 달성...금메달 '최다 타이' 역도 박혜정 은·근대5종 성승민 등...“4년 뒤 LA에서 만납시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렸던 스포츠 대축제, 2024 파리 올림픽이 12일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 금 13, 은 9, 동 10개로 총 32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순위 8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21개 종목 선수 144명으로 48년만에 최소규모로 출전했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한국의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다.

이번 올림픽 마지막 경기 날인 11일 한국은 여자 근대5종에서 성승민이 동메달, 역도 여자 81kg 이상급에서 박혜정이 은메달을 따냈다. 여자 역도 81kg 이상급 박혜정(고양시청)은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인상 131kg, 용상 168kg, 합계 299kg을 들며 중국 리원원(309kg)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박혜정은 인상과 합계에서 한국 신기록을 들어 올리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2016 리우 대회 윤진희의 동메달 이후 8년 만, 여자 최중량급에서는 2012년 런던 대회 장미란의 동메달 이후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이다.

근대5종에서는 이날 성승민(한국체대)이 여자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근대5종 여자부에서 아시아 국적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근대5종 여자부 결승에서 성승민은 1441점을 획득하며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복싱 동메달리스트 임애지(화순군청)와,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경희대)이 한국의 공동 기수를 맡아 입성했다. 임애지는 이번 대회 복싱 여자 54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박태준은 한국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남자 58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단 입장에 이어 11일 열린 여자 마라톤 경기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초대 근대 올림픽인 1896년 아테네 대회 이후 폐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폐회식의 참가 국가 입장 및 선수단 행진에서는 205개의 각국 선수단이 국기를 들고 자유롭게 경기장에 들어온 뒤 상징적으로 지구를 표현한 경기장 중앙의 무대를 행진했다. 이번 대회 복싱 동메달리스트 임애지(화순군청)와,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경희대)이 한국의 공동 기수를 맡아 입성했다. 임애지는 이번 대회 복싱 여자 54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박태준은 한국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남자 58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단 입장에 이어 11일 열린 여자 마라톤 경기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초대 근대 올림픽인 1896년 아테네 대회 이후 폐

회식에서는 남자 마라톤 시상식을 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파리 올림픽 폐회식에서는 전통을 깨고 사상 최초로 여자 마라톤 시상식만 진행됐다. 2020 도쿄 대회에서는 폐회식에서 처음으로 남녀 마라톤 공동 시상식이 열렸다. 올림픽이 이양식에서는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LA)에 오를기가 전달됐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토니 에스탕게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올림픽기를 받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돌려줬고, 바흐 위원장은 다음 개최지인 캐년 베스 LA 시장에 오를기를 넘겼다. 태극전사들을 비롯해 파리에 뜨거웠던 활약을 보여준 전 세계 선수단은 이제 2028 LA 올림픽을 바라보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

“이제는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결단식

골볼·보치아 등 17개 종목 177명 광주·전남 10개 종목 24명 출전

한국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17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그 바통을 이어받는 패럴림픽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정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개식사로 시작된 결단식 일정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격려사, 종목별 선수단 소개, 배동현 파리패럴림픽 선수단장 출정사, 단기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 장관은 선수단 대표인 김영건(광주장애인탁구팀)과 이도연(전북장애인사이클연맹)에게 격려와 응원을 담은 손편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8일(이하 현지 시간) 개막해 9월 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패럴림픽에는 182개국, 4400여명이 출전해 22개 종목 549개 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친다. 한국에서는 177명의 선수단(선수 83명, 임원 94명)이 파견돼 골볼·배드민턴·보치아·사격·사이클·수영·양궁·역도·유도·육상·조정·카누·탁구·태권도·트라이애슬론·휠체어테니스·휠체어펜싱 총 17개 종목에 나선다. 현지 적응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9개 종목 104명의 선수단이 오는 14일 선별대로 파리로 출국한다. 이어 21일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정식을 갖고 뒤를 따른다. 이날 광주·전남 선수단도 결단식에 참석해 패럴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에서는 총 6개 종목에 16명의 선수단(감독 1, 코치2, 선수11, 보조선수1, 로터1)이 참가한다. 조재관 대표팀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는 탁구의 박진철·김정건·김정길·서수연·김성욱(이상 광주시청), 양궁의 김옥금·정진영(이상 광주시청), 사격의 박동안(광주시청), 조정의 김세정(광주장애인조정연맹·롯데캐미칼), 보치아의 강선희(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한전KPS), 육상(투포환)의 정지승(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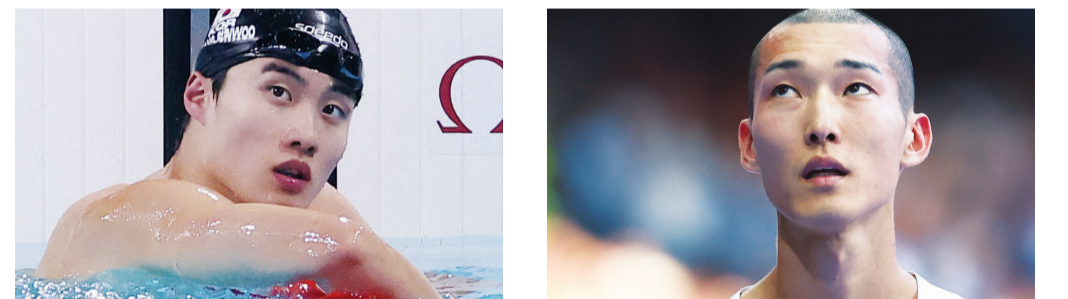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선수단이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주장애인육상연맹·삼호개발)이 출사표를 던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선수단에 “한계를 넘어, 희망을 향해 힘없이 달려온 열여섯 영웅들의 아름다운 무한도전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내비쳤다. 전남에서는 총 4개 종목에 8명의 선수단(감독1, 코치1, 선수6)이 출전한다. 사격의 이윤리(안도군청), 펜싱의 백경혜(한전KDN), 배드민턴의 유수영·권현아·정겨울(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궁의 장경숙(한전KDN)이 참가를 확정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5개(탁구3, 보치아1, 사격1) 이상 획득,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은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 포르트드라샤벨 아레나에서 치러지는 배드민턴 단·복식 조별예선으로 패럴림픽 여정을 시작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파리가 끝이 아니다



수영 황선우·높이뛰기 이상혁, 재기 의지 다져

한국 수영과 육상을 이끌던 황선우(21·강원도청·사진 왼쪽)와 이상혁(28·용인시청·오른쪽)에게 2024 파리 올림픽은 잔인한 기억으로 남았다. 허탈함을 느끼고, 눈물도 보였지만 둘은 “파리 올림픽이 끝이 아니다”라며 다시 힘을 내기로 했다. 12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 황선우와 이상혁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누구보다 자신들의 실망이 컸다. 황선우는 주 종목인 경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결승 진출(준결승 9위)에 실패하고, 자유형 100m(예선 16위)에서도 부진했다. 남자 계영 800m 결승(6위)에서도 황선우는 자신의 속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자유형 200m 3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며 금, 은, 동메달을 한 개씩 수확한 ‘메달 후보’ 황선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경영 종목 일정을 마치며 “나도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훈련도 잘했고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도교 올림픽 이후 세계선수권, 아시안 게임에서 네 메달을 따서, 지금 상황이 더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상혁은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7에 그쳐, 7위에 머물렀다.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 2위(2m35), 2023년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을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인정받은 이상혁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이었다. 이상혁은 경기 뒤 “파리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했다. (김도균) 감독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감독님은 개인적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나를 위해 힘썼다. 오늘 메달을 따서 보답하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며 평평 울었다. 황선우와 이상혁은 3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없는 영웅’으로 불렸다. 황선우는 도쿄 대회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로도 1956년 멜버른 대회의 다니 아쓰시(일본) 이후 65년 만에 올림픽 이 종목에서 결승에 올라 5위 자리를 꿰찼다. 자유형 200m 예선에서도 1분44초62의 당시 한국 신기록과 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세우고 준결승에 진출한 뒤 한국 선수로는 2012년 런던 대회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결승까지 올라 7위를 차지했다. 이상혁은 도쿄에서 2m35의 당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트랙&필드 올림픽 역대 최고인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파리는 둘에게 잔인한 기억만 남겼다. 심리적인 타격이 크고,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겉도 나지만 둘은 다시 나아가기로 했다. 황선우는 “사실 그동안 나 자신을 ‘나이 든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아직 어려더라. 내 수영이 파리에 끝나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LA 올림픽에도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4년을 준비할 힘을 얻었다”고 웃었다. 이상혁도 “파리에서 좋은 자극을 받았다. 동기 부여도 됐다”며 “내 목표는 파리에 끝나지 않는다. LA 올림픽에서 불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